

사회복지를 위한 정보화의 역할에 대한 연구

정 종 기

요 약

정보화는 IT의 기술의 씨알이 되어 발전하였으며 한국이 세계 속에 두각을 나타내게되었다. 21세기의 초창기는 기술로 승부하겠지만 점점 기술의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부속적으로는 기술의 응용분야도 함께 발전해야한다는 명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정보기술의 아우름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옛말에 "구슬이 세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응용되고 인간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정보화를 사회복지에 응용하는 분야 중 개략적으로 방법론을 다루었다. 이 주제발표가 IT기술을 개발하는 학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제 발표를 하게되었다.

I. 서론

정보화 사회에 복지적인 참여는 과거와는 다른 형편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기술로 탄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다면 정보화 사회는 누구나 기술을 응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다른 점이다.

다시 말해 산업사회의 기술은 소유적인 접근이라면 정보화의 기술은 분배적인 접근을 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인데도 아직도 정보화의 기술을 축적하는 소수의 소유물인 것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있어서 정보화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

혹시 소유적인 기술로 영원히 간다는 개념은 발전을 포기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기술은 나누고 서로 조합을 할 때 새로운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누는 기술은 힘이 이동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Power 가 형성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정보화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있는 구별된 특성을 기술적인 tools를 이용한다면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응용된 정보와 기술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는 쉽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복지적인 측면의 접근은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접근되어야할 분야다.

정보화 사회에서 복지적 측면의 접근은 다양한 방향을 요구하게되지만 크게 보아서 선택적인 측면과 사회의 편리적

인 매체 그리고 전달의 편리적인 접근이 아마도 컴퓨터 정보분야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을 생각하고 정보분야 학자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으로 의식적 전환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번 학회에서의 정보화의 사회복지와의 접근은 당연히 접목되어야 할 분야이며 단지 다양하고 차원 높은 기술의 개념들을 복지적인 개념과 공생함으로 더욱 높은 질의 정보화를 가져오는데 응용적 사고의 패러다임을 꾸며보고자 사회봉사와의 접근, 정보교육, 정보의 유통 및 통신의 접근의 방향을 우선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정보화사회란

정보화사회(Information Society)는 1963년 일본의 우메사오 다다오(梅棹忠夫)의 정신적 산업사회라는 논문에서 정보사회라는 말을 사용함과 아울러 1968년 도쿄에 미래 학자들이 모여 후기 산업 사회(Post-Industrial Society)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일본 학자들의 제안으로 후기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의 용어를 병용하기로 하면서 사용되었다.

또한 다니엘 벨(Daniel Bell)은 정보화사회를 후기 산업 사회와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브레진스키(Z. Brezinski)는 기술전자사회(Technotronic Society)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보사회의 매체는 컴퓨터나 멀티미디어 및 통신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매체의 발달은 사회의 관계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산업사회의 특성과 정보화 사회의 특성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아날로그 사회(Analog Society)와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 대응되며 복합적인 요소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업적이며 개략사회에서 혼합적 명확한 사회로 변화되었다. 즉, 아날로그사회는 평생동안의 관계 유지와 연공서열의 사회제도이라면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는 이산적(離散的)인 관계형태이면서 능력주의 사회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사회의 봉사활동은 과거의 산업사회의 봉사활동과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에 의해 봉사가 이루어졌다면 정보화사회의 봉사의 패턴의 변화는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전공별 팀별 봉사 내용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봉사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정보통신의 다양한 확보다.

- PCS 사업은 날로 발전하여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모든 구석까지 한 통화권으로 만들고 있다.
- 사회의 구석까지 신속한 연락과 봉사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 의료서비스나 공공봉사 서비스 등은 신속한 정보통신을 근간으로 하고있다.

둘째, 情報機器 활용으로 Data Base 구축을 통한 계획적이며 봉사 수용분야에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셋째, 사회의 多核化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봉사활동의 욕구가 다변화 된 현상이다.

넷째, 정보사회는 수혜자에 관심보다 봉사 형태에 관심이 있다.

面識的인 패턴에서 봉사 분야에 대한 Data의 확보는 새로운 봉사 문화를 요구하고있다. 즉, 과거는 누구를 돕는 다는 인적 중심의 봉사패턴이 이제에는 어떤 능력이 봉사에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III. 정보화와 사회복지의 접근

1. 자원 봉사적 정보의 접근

현재 정보화 사업은 걸치레의 정보제공이 아니라 사회 깊은 구석구석까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인 당위성에 서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우선 자원봉사(Voluntary Activities)의 정보화가 요구된다. 우선 자원봉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기관을 통하여 활동하고 창조하고 실험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힘쓰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자유와 민주적 과정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G. Manser and R. H. Cass, 1976), 또 자원봉사란 공익의 어떤 요소를 증진 혹은 촉진하기 위하여 자발적, 사적 노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자(volunteer)인데 그들은 이타주의(altruism)와 이기주의(self interest)의 다양한 정도에 따라 동기가 주어지고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다. 또 Kramer는 자원봉사란 일련의 자원적 가치지향(volunteerism)과 자발적인 민간조직체(voluntary Organization)의 두 요소로 성립되는 것이라 했다.(R. M. Kramer, 1981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사회사업총람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나 기관의 책임일부를 감당하는 자로 노력의 대가를 지불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남경현, 1977)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연구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공사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봉사활동은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이어야 하며,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의 공공성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이러한 자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사후 관리적 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보화는 중앙에서 허브역할을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러한 봉사 기관과 봉사자들의 활동을 과학적이며 경제적으로 운영하며 가장 적절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정보화의 극대화다.

봉사적인 정보의 부족은 봉사자가 지나치게 많은데 수혜 받을 자가 부족하고 봉사자는 부족한데 수혜를 받을 자는 많은 현상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봉사의 질이 다양하게 욕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분야별 봉사를 연결하는 분야도 바로 복지적인 측면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1) 국내 자원봉사활동의 정보화적 체계성의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하여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상담이나 봉사를 열어주는 중요한 몫이 바로 복지 유틸리티와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에는 자원봉사센터가, 학교에는 전담교사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 부서, 그리고 관련기관 사이의 협력기구 등에서 인터넷상의 충분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시스템을 지원 하는 분야가 바로 정보화의 할 몫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봉사자들을 운용할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각 봉사기관을 위해서 IT 지원방안은 자원봉사 교육(service learning) 프로그램개발과 진보적 프로그램 지속적인 지원제도 등이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봉사 기관들은 사회적 문제 중심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관의 특성을 살리며 시행에 있어서는 타 기관과의 연대를 모색하여 실시함이 좋다. 이러한 연대를 이루는데는 바로 정보화의 몫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서비스센터와 협조를 받으며 교육기관과 교육청의 협조도 서로의 시스템 공유로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민간단체의 의욕과 힘만으로는 안 됨으로 산학연의 협조가 필요하다.

(2) 노력봉사의 계획적인 시스템운영

현재 복지 행정적 차원에서 세밀한 봉사 계획과 프로그램은 대체로 미비하다. 단지 행정은 봉사라는 개념을 단순화하고 있으며 근로봉사 측면만을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사회 급변하고 사회의 욕구가 달라지면서 다양한 봉사의 프로그램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화의 변화도 급속하게 변화를 요구하는데 다시 말해 좀더 체계적이고 적재적소에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는 정보화의 지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교육개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점수 부여로 청소년들의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면서 새로운 정보화의 지원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은 계획적인 봉사를 기대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문제에 기인한다.

사회봉사 활동보다 당연하게 학과 공부에 치우쳐다보니 휴일이나 학력고사 이후에 봉사활동이 물리는 경향이 많다. 다시 말해 무계획적이며 미 조정된 봉사 패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바로 복지적인 봉사시스템운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 상시적 봉사

재해나 농촌봉사나 계절적인 봉사는 계속되어야 하며 계획적인 상시적 봉사 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봉사 수요와 공급을 위한 Data Base를 구축하여 상호 적절한 봉사 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방향은 바로 정보화에서 복지적인 접근에 필요한 분야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봉사활동의 공급을 적절하게 운영 계획에 따라 쉽 없는 봉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 단체나 동아리가 조직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와 동아리의 연계된 봉사활동이 요구된다.

2. 교육적 접근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 장애인의 실태는 인구 1만 명 당 3 ~ 5명으로 조사되는데 실제적으로 등록 장애인은 훨씬 못미친 현실이다. 여기서 후천적인 장애인은 정보화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많기에 여기서는 발달장애인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은 여러 측면에서 일반인과 다르다. 또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은 일반 정보화 교육과 분명히 다르다. 결국 일률적인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발달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을 찾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원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원격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이 어려운 이유 중에는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인내력과 이해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off line에서 정보화 교육 시는 맨투맨(man to man)으로 발달장애인을 도와 줄 정보화 자원봉사가 가능하지만 on line으로서의 교육은 어려운 현실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접근과 도움을 통해 재교육에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초기에는 정보교육장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방문의 교육을 통해 보강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현대는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이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적으로 '복지IT기기'라 부르는 제품들이다.

이 덕분에 정보화의 소외지대에 있던 장애인들도 IT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개발프로그램의 시장성이 부족해서 개발이 저조했지만 이제는 시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예가 KT가 개발한 '휴보이스'는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콘텐츠 등을 읽어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PC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있다.

원래는 음성인식기술은 더욱 장애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복지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ETRI가 개발한 '음성키보드 소프트웨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면 사용자가 글자를 타이핑할 때마다 해당 글자가 음성으로 변환된다.

힘스코리아가 개발한 '브레일 한소네'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입력 또는 출력되는 모든 내장애인 위한 통신요금제 SK텔레콤은 청각장애인들이 음성통화보다 문자메시지 통화를 많이 한다.

컴퓨터를 접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의 접근이 복지적인 사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정보의 유통 및 통신의 접근

정보 정보화수준에 따른 업무향상과의 관계적 측면의 연구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복지단체가 업무향상이 되고 있다는 통계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관련 종사자나 복지적인 혜택을 받는 자들이 정보화의 수준에 따라 복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기관이나 복지혜택을 받는 자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인터넷의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한 현실을 감안하여 각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컴퓨터정보통신을 생활하며 복지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복지적인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기관의 정보화의 센터역할을 해야한다.

장애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정보의 센터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즉,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를 위해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정보센터(Community Welfare Information Center)"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복지관의 건물을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자들의 부단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복지사들의 정보화의 수준은 업무관련 시스템 운용 뿐 아니라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정보화의 비용의 지원이 지속되어야한다.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들의 정보의 접근은 비용이 들게 되어있다. 고가의 프로그램 구입문제와 교육의 비용 문제 나아가서는 통신 운영 시 qldydans제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연결 망 형성(networking)의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복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부단한 인터넷 망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IV. 복지분야의 정보성 접근 방향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은 사회복지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활용을 살펴보면 조직의 수준에서 개인의 선택적인 참여에 의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복지계통에서 응용하고 있는 호스트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수준이 낮다는 것은 아직은 복지적인 측면에 인터넷의 중요성이 부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복지관마다 홈페이지는 거의 개설하고 있지만 조직 전체 차원의 운영이라기보다는 개개의 복지 센터별 운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한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Phillips & Berman(1995)은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화에 대한 사회복지조직의 반응을 응용한 방향을 살펴본다.

첫째, 정보화를 위한 복지 종사자들의 의식의 부족이다.

현재 일반조직과의 비교해보면 정보화의 현장에 복지는 단지 케어(care)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식은 복지적인 측면에 정보화 개발에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보의 공유로 최선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둘째, 토큰리즘(Tokenism)의 현실이다.

형식상으로 시스템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현재 컴퓨터의 현실은 상당히 사양이 낮아서 장애인들에게 교육하기도 쉽지 않다는 현실이다.

사양이 낮아지면 복지 센터로 보내는 생각은 잘못된 행위이며 장애인들에게는 좀더 나은 사양을 통해서 정보화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경우는 생색내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복지센터 방문 시나 선거를 의식한 가운데 이러한 토큰리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복지센터의 정보화가 항상 뒤 처지는 경향을 가져온다.

셋째, 자료의 구획화(compartmentalisation)의 문제다.

복지적인 정보화의 접근은 가능하면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현재 컴퓨터의 접근이 행정적인 담당자와 관리자의 위주의 정보화는 실용자들의 입장에서 운영토록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통합과 혁신(innovation)의 요구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정보화의 방향이 바로 통합과 정보기술의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적인 분야에서 정보화의 추진은 조직의 자체가 서로의 상생하며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앞으로의 복지센터는 장애인의 지원센터라는 개념에서 지역사회의 주민의 복지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몇 가지 살펴본다.

첫째, 정보교환을 위한 정보교류창구(clearing house)로 활용되어야한다.

뉴스그룹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사회복지학 연구자나 실무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손쉽게 구해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뉴스그룹을 운영하면서, 관련자료들을 축적해놓고 회원 또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공개자료실을 운영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정기적인 채팅과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최신 동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 정보의 교환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 구축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이 구축된다면, 사회복지연구자나 실무자들이 자신에 필요한 자료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는 다시 다른 사용자들을 위한 정보로서 축적될 수 있다.

둘째, 상담을 위한 교육자원 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넷이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 전문직에 가져다 준 영향 중 하나는 상담기능의 확대이다. 대면 상담에 부담을 가지면서도 상담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전통적인 대면상담 역시 전자계시판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상담활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몇몇 상담기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의 경우 개별적인 상담은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있으며, 또 채팅기능을 이용해 집단상담까지 가능할 수 있다. 아울러 공개적인 상담실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습득할 수도 있다.

결국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갖는 익명성, 피상담자의 자질적인 접근성, 상담관계의 자유로운 종결 가능성 등은 대면상담이 갖는 장점이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나 상담 받고 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서 제공해 줌으로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복지적인 수혜자의 정보관리 활용이다.

지금까지 정보기술의 활용은 주로 관리업무의 효율화 측면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는 경영학에서 발전된 정보관리체계(MIS)에 근간을 두는 것으로, 사회복지조직 내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다.

V. 결론

복지 사회의 현실은 정보화의 질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증진시키려는 의도는 가지고있지만 복지를 담당하는 자들은 한계가 분명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과거 정보분야의 IT기술은 기술분야만 단독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변화를 가져와서 다양하게 접목되고 운영되는 종합적인 개념이어야만 서로가 상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IT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응용분야 개발에 소홀함으로 좋은 기술이 사장되는 안타까움이 많았다. 이러한 경험은 거울삼아 기술개발과 함께 사회에 응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기술의 학자와 사회과학자 그리고 문화를 주선하는 지도층과의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 복지적인 측면은 지속적인 IT의 고객이기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더해야할 것이다. 이 주제발표에서 3개의 분야를 다루었지만 이는 정보를 요구하는 분야에 아주 미비한 분야에 불가하다.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 정보화가 접목되어야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려 한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서용, "사회복지관련 입법논의의 흐름과 쟁점"
- [2] 월간 흐름 3월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3] 1995. 부산광역시,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 1995.
- [4] 신섭중,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영출판사, 1993.
- [5] 이강현,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및 발전방향"
- [6]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1994
- [7] 이대근, "우리나라 자원봉사정신의 뿌리"
- [8] 자원봉사 제9호
- [9] 한국자원봉사연합회, 1994.
- [10] 이성록 편역, 자원봉사활동 관리 조정론, 학문사, 1995.
- [11] 이창호, 대학생 자원봉사 핸드북, 성공회대학교 출판부, 1995.
- [12] 이학중, 인적자원관리, 세경사, 1995
- [13] 조영승, 「청소년학총론」
- [14]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15] 하종원 외,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 2000.
- [16] Dunn, P. C., "Volunteer Management",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Washington D.C. : NASW Press, 1995.